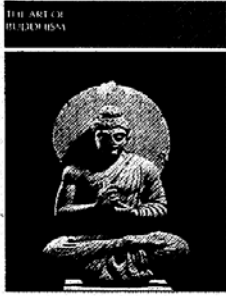


### 불교미술

디트리히 제켈 지음  
이주형 옮김  
예경, 2인9천원



▷ 불교미술사 최고 걸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반야바라밀' 불상의 얼굴 부분. 자카르타 국립박물관 소장.

## 역사적 전개과정·전해진 경로 등 조명 기본개념·주제별 유형 표현형식 탐구

종교로서의 불교와 예술로서의 미술은 어떻게 결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가.

〈불교미술〉은 바로 불교와 미술의 오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불교미술의 역사적 전개과정, 불교미술이 전해진 경로, 다양한 지역 사이의 연관관계, 또 주변 중심지로부터 주변으로 확산될 때 증대했던 지역의 역할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불교 미술의 기본 개념과 주제별, 도상적 유형과 표현 형식까지 언급하고 있어

이 한편이면 불교미술의 역사를 꿰뚫을 수 있다. 이 책은 독일의 유명한 미술사학자 디트리히 제켈(92세)이 1962년 독일에서 기획된 '세계의 미술' 시리즈의 한편으로 펴낸 것을, 서울대 고고미술사

학과 이주형 교수가 번역한 것이다. 저자인 디트리히 제켈은 베를린대학에서 독일문화와 미술사학을 전공했으며, 나치 독재 때 일본으로 건너가 47년까지 머물면서 일본의 불교미술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동양미술을 폭넓게

공부했다. 종전과 함께 귀국한 뒤, 전후 독일에서 동양미술사의 연구와 교육의 기틀을 확립한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불교미술에 관한 사양어권 개설서로 이만큼 종합적은 책은 지금까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불교미술은 인도에서 중

## 한권으로 꿰뚫는 불교미술

### 옛날 연등회 경비 어떻게...

#### 불교민속놀이

문화재연구소 펴냄  
비매출



면 아이들은 장대에 종이를 붙여 깃발을 만들고는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썩이나 돈을 얻어 비용으로 썼다. 고려 공민왕 때에는 궁궐에서 이를 재연해 공연하기도 했는데, 아이들에 의해 행해진 연회라는 뜻에서 '호기회' '호기동회'라고도 부른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불교민속놀이〉는 호기놀이, 삼회향(三廻向)놀이, 법고(法鼓)놀이, 탑돌이놀이, 정대불사, 연등놀이 등 대표적 불교민속놀이가 6개에 대한 조사보고서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법회인 장경도량을 계승한 해인사 정대불사나 범주사 탑돌이처럼 불교 의례적 성격이 강

### 삼회향·법고놀이 등 6종 조사보고서

요즘도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열리는 연등 행사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대표적 불교 행사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연등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어떤 식으로 마련했을까? 〈고려사〉나 〈동국세시기〉를 보면 옛사람들은 경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놀이 문화로 정착시켰다. 바로 '호기놀이'이다. 연등 행사가 다가오

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연등 놀이나 호기 놀이처럼 하나의 놀이 문화로 발전한 것들도 있다. 법회의 뒤풀이에 해당하는 삼회향놀이, 법고 놀이는 처음부터 놀이적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연등 놀이와 정대불사, 탑돌이 놀이를 빼곤 일제의 고유문화 말살 정책과 근대화 로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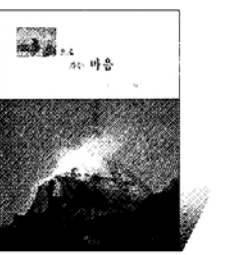
권형진 기자



낙산사 가는 길  
유경환 지음  
문학수첩 / 6천5백원

#### 시집2권

산으로 가는 마음  
하운형 시, 정우성님 사진  
일주문 / 1만2천원



### 언어로 빛은 산사의 미학

'절간/추녀 끝/달에 끌려간다/눈짓 같은/물빛/풍경소리/바람처럼/추녀 끝/끌려가누나.' 낙산사 가는 길의 유경환 시인이 최근 시집 〈낙산사 가는 길〉을 펴냈다.

자연이 살아 있음을 추녀 끝을 지나 가는 달의 움직임으로 형상화한 이 시는, 달이 추녀를 끌고 간다고 노래한다. 시인은 또한 추녀 끝에 매달려 있는 '물빛/풍경소리'를 통해 청각적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전방위적 감수

성을 펼쳐 보인다. '눈짓'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풍경소리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시인은 달이 추녀 끝을 움직이니 풍경소리가 일어난다는 시적인 상상력을 펼쳐고 있는 것이다.

이 시집에는 낙산사 가는 길에 쓴 20편의 시와 설악과 정선, 오대산을 노래한 시들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유 시인은 곳곳의 풍경 속에 오롯이 담겨 있는 자연의 진리와 삶의 이치를 아름다운 시어로 노래한다.

이은자 기자 eje@buddhapia.com

### 詩心으로 남은 구도의 삶

'세상을 버리고/산으로 가는/까닭이 무어냐고/누가 묻거든 이제는 인간 의/숲이 무서워/나무들 사이에/숨어 살려고//세상을 돌아서/산으로 가는/까닭이 그거라고/말해주거라' 〈산으로 가는 마음〉

〈산으로 가는 마음〉은 덕성여대 중문학과 교수였던 고 하운형 교수의 시에 구룡사 주지 정우성님의 인도 성지 사진을 담은 시집이다. 남달리 신심이 깊었던 하 교수는 12

년전부터 스님처럼 사시에 불을 올리고, 오후 불식을 하며 채식만을 고집했다. 올해 초 3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모든 일을 정우성님과 의논하며 담담하게 죽음을 준비했다고 한다. 하 교수는 지난 6월 29일 이 세상을 떠났지만, '마음의 반야' '두타행' '지관' '산방한담' '반뇌의 무게' 등 그의 시 한편 한편에는 철저한 구도자로 살고자 했던 그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 출판가 소식

고은 시인(70)의 45년 문학 인생을 담은 <고은 전집> (김영사)이 출간됐다. 원고지 12만여매, 2만3천여쪽, 총 38권에 이르는 전집은 국내 작가 전집으로는 최대다. 전집은 시 14권, 산문 7권, 자전 3권, 소설 7권, 기행 1권, 평론과 연구 5권으로 구성됐다. 2년동안 편집 인력 1백명이 동원됐으며, 5백부 한정판으로 가격은 1백90만원이다.

고은 시인은 전집 서문에서 시인답게 '서시'로 간행 인사를 했다.

“어느 날은(손님)가 하였습니다//어느 날은(주인)인가 하였습니다//이런 세월/글썩들/피워올림/연기를 꿈꾸었습니다//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시가 누구인지”

고은 시인은 지난달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동료 문인들과 민주화 운동가, 종교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집 간행 기념회를 가졌다.

〈바로 이번 생애〉등 문광부 추천도서 애(우편)디파 지음, 불광출판사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탁남한 지음, 김영사) <성리학, 유불도의 만남〉(김용남 지음, 운주사) 등 세권의 불교관련 책이 제3회 문화관광부 추천도서(종교 철학분야)에 선정됐다.

올해의 추천도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발행된 책 가운데 심사위원 총 2,529명, 3,575권의 도서를 대상으로 했다. 추천 도서는 각 분야별 학계 및 전문단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32명의 심사위원 회에서 전체 예비심사, 분야별 심사를 거쳐 전체 본심사 및 최종심사 등 4단계의 심사과정을 통해 총 101종을 선정했다.

분야별 선정 종수는 총류·어학(4종), 종교·철학(7종), 문학(16종), 예술(7종), 문화일반·문화재(7종), 아동·청소년·만화(25종), 사회과학(16종), 과학기술(10종), 역사(7종), 번역(2종) 등이다.

###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재방 역시인물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이워꼬	성철스님	김영사
2	화(Anger)	탁남한	명진출판사
3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용욱	동나두
4	평화로운	탁남한	열림원
5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원택스님	김영사
6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공감	우룡스님	효림
7	마음꽃	경희스님	고요아침
8	숫타니파타	법정스님	이레
9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일근동	솔바람
10	편지	경봉스님	고요아침

도서 안내: (02)737-0695

###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02)737-0695 / 팩스: 02)737-0696

## 군화천부경

아~ 君軍火火 嗚唵嘛嘛 오셨네!

아!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다니 누가 그 분을 알아 보겠습니까. 왜? 성인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하고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알아파면 죽나니” 그 분을 꼭 만나라고 하셨을 까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참으로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가본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선(神仙)이 되어줍니다. 갑신(甲申)년에 하늘의 신이 땅으로 내려 오셔서 사람들과 합하여 신선의 몸이 되어 지상 낙원을 이룹니다. 하늘의 신과 사람이 하나로 합하기 위하여 탕탕탕 세 글자의 주문을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다하여 연속 외워야 합니다. 탕탕탕은 하늘의 신이 감추어 놓으신 무기이며 신을 찾는 암호입니다.

“君火海印 蕩蕩蕩!” (군화해인 탕탕탕!)

군화엄마는.....!

- 군화엄마는 사람속에 계시는 부처님의 새 이름입니다.
- 미륵을 부르는 오마니반예흠, 음, 소울음, 흠치 모두 천지 부모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 사람들이 기다리는 미륵, 정도령 그분 이름은 군화엄마 이십니다.

쌍미륵 출현!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전해져오는 쌍미륵불

석가사후 3000년뒤 쌍미륵이 미륵이 오신다 했습니다. (현재 불기 3029년)

- 2004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국이 됩니다.
- 2004년에 인간이 죽지 않는 영원한 신선세계가 시작됩니다.

군화천부경 시중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전국 미술방 연락처: 역삼 신동 011-9469-5443 011-222-5206, 02)567-9493 방배 016-747-1440, 02)3487-6169  
 파천 011-9991-0450 군지 011-9797-9906 침실 011-9797-7123 서당 011-275-8830 대전 042)625-3212 부산 051)503-8795  
 광주 062)376-9892 대구 053)755-9166 전주 063)232-2254 청주 043)272-4879 덕소 031)521-4933 안양 031)443-1440

## 고향찾는 나그네 푸른 한올이 되어 생활속의 명상시

산국판, 224쪽, 값: 6,800원 보덕현호 시집

푸른 한올이 되어 산국판, 152쪽, 값: 5,500원 보덕현호 시집

생활속의 명상시 산국판, 184쪽, 값: 6,500원 법안명상 시집

법해, 지법, 현수, 정명외 19인 공저

... 들림 정화사 ... 들림 정화사 ... 들림 정화사

... 들림 정화사 339-834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Tel: (041)867-4000 Fax: (041)867-4001